

설교제목: “첫 표적”

설교본문: 요한복음 2 장 9~11 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우리 역시 행복을 좇아서 삶을 산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바란다.

국어사전을 보면 행복이란 말은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설명되어 있다.

내가 바라던 일들이 잘 되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이런 행복감을 어떻게 계속 누릴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어떻게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바란다. 사단은 우리가 불행의 길을 걷다가 급기야 망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불행에 빠지도록 숨어서 우리가 약해질 때를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불행의 무서운 모습으로 마구 공격해 온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된 길이 있다.

또 한편 우리 앞에 사단이 바라는 불행의 길이 있다.

길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복된 길을 찾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복이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2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1: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1: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혼인식 하는 집의 도우미로 먼저 오셨다. 아마 그 혼인식 하는 집과 먼 친척관계였던 것 같다.

그런데 축하하러 온 손님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왔는지 아니면 그날 분위기가 그렇게 만 들었는지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음식과 같이 먹는 음료수이다. 하지만 혼인잔치 때에는 음료수를 넘어 흥을 돋기 위한 술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그 술이 떨어진 것이다.

큰일 난 것이다.

곧 불평, 불만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기뻐야 할 혼인잔치가 험악한 잔치가 될 판이었다.

그 혼인잔치 집에 도우미로 와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급하게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다.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수를 쓰든지 포도주를 급히 구해 주기를 부탁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알 듯 모를 듯 한 답변을 예수님의 모친에게 하셨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런 예수님의 답변을 새겨 생각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었다.

곧바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고는 다른 일을 보러 달려 가버렸다.

이제 나머지 책임은 예수님께 넘겨졌다.

예수님은 갑자기 사람들의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하인들은 상황이 상황이라 발을 동동 구르며 예수님의 다음 말씀만을 기다리고 있다.

속히 어느 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 오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아니면 급히 포도주를 구할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으로 하인들을 보내실 수도 있다.

하인들은 무슨 대책이 있으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 구하는 일을 맡겼을 것이라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잔칫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식사 전후에 손 씻는 예식을 행하기 위함이었다.

많은 손님을 예상하고 물을 넉넉히 준비한 것이다.

주석에 의하면 두 세 통 드는 항아리"의 용량(用量)은, 약 77 리터, 혹은 115 리터에 해당된다.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다.

이미 온 손님들, 식사를 시작한 손님들은 이 물을 이미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이 식후에 사용할 물만 남은 것이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항아리의 아귀까지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아귀까지 물을 급히 채웠다.

그 다음 예수님의 놀라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인들은 듣게 된다.

2: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 연회장은 손님들 중 최고의 어른이었다.

연회장은 그 물을 마시고는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10 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최고의 찬사다.

연회장은 그날 혼인잔치 말고도 다른 잔치에 어른으로 초대되어 최고의 대접과 예후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곳저곳 초대를 받고 또 이런 저런 평가도 즐겨했을 것이다. 그는 소위 술맛께나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항아리에서 떠온 물을 마시고 이런 최고의 찬사를 한 것이다.

연회장이 마신 것은 물인가 포도주인가?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떠내온 것은 물인가 포도주인가?

하인들이 항아리에 부은 것은 물인가 포도주인가?

누가 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만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셨는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표적(sign)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곱 표적을 소개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표적(sign)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일곱 표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다.

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물론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려고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마구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표적에는 크고 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자칫 축복 받고 행복해야 할 혼인잔치가 험담이 오고가는 불행한 혼인잔치가 될 뻔 했다.

그 혼인잔치의 불행의 요소가 될 포도주의 고갈을 예수님이 책임 맡게 되었다.

예수님은 책임을 지셨다. 최고로 복되게 하신 것이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다함이 있다. 분명히 다함이 있다.

혼인잔치의 술이 떨어지듯, 다함이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면 결코 다함이 없음을 믿자.

물은 물이고 술은 술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최고의 술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우리 인생 다 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

이 생령이 되니라

3:19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 하면 결국 흠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시면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된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기신다.

요한복음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